누가복음 강의안 3

1. 누가복음의 구조

누가도 마태 처럼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부활을 통한 예수의 재등장 사건을 아주 풍부하게 묘사하면서 마무리 한다.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동안 벌어지는 동안 벌어진 일을 다룬 긴 여행 단락이 있다 (9:51-19:27). 이 단락에는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며, 이 복음서는 어느 정도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크게 다섯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1:1-2:25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3:1-4:13 예수의 사역 준비

4:14-9:50 갈릴리의 예수

9:51-19:27 예수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19:28-24:43 예루살렘의 예수: 그의 죽음과 부활

누가는 예루살람을 향해 이동하는 반면에, 사도행전은 이와는 정반대로 광범위하게 예루살렘을 벗어나 (행 1-7), 땅 끝으로 (행 1:8) 향하다가 바울이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 (행 28:17-31)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누가는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시작하여 (눅 1:5; 2:1; 3:1을 보라) 로마제국의 심장부에서 두 권의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1. 누가복음 1-2장 연구
2. 서문(1:1-4)
3. 예수의 탄생과 유년기(1:5-2:52)

(2.1.) 요한 탄생에 대한 예언(1:5-25)

(2.2.) 예수 탄생에 대한 예언(1:26-38)

(2.3.)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1:39-56)

(2.4.) 요한의 탄생(1:57-80)

(2.5.) 예수의 탄생(2:1-20)

(2.6.)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의 드려짐(2:21-39)

(2.7.)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성장(2:40-52)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서문(1:1-4)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할 뿐 아니라, 바로 이어서 첫 두 장을 의미 있게 시작하고 있다. 일명 ‘탄생 기사’라고 부른다. 여기서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을 각각 비교하면서 서술하고 있는데, 요한을 엘리야처럼(1:17) 소개 하는 반면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들의 기원 을 밝히고 있다(1:31-35). 이런 점에서 요한은 종말론적 새 시대의 마지막 예비자(forerunner)로, 예수는 성취자 (fulfiller) 묘사되는데, 이런 점에서 요한은 옛 시대와 새 시대에 중첩되는 구속사의 특별한 인물이다(16:16 참조).

그럼에도 눅 1-2장은 예언의 성취 가운데 나타나는 두 인물들을 설명 해 주는 동시에 모든 점에서 요한보다 예수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요한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요(메시아가 아니요), 예수가 바로 오실 그 분 메시아라는 선포이다. 한편, 마리아의 찬가(1:46-55), 사가랴의 노래(1:67-79), 시므온의 찬미(2:28-32)는 누가-행전의 중심 주제를 예언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2:30). 그러나 이 성취는 사람들의 수용과 핍박의 이중적 반응 가운데 성취되어 나타난다(2:34).

1:1의 “이루어진”이라는 단어는 “온전히 선포된”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예수 이야기들은 상당 부분 이미 회자되어왔고, 알려진 이야기였을 것이다 (참조 1:2).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의 전승을 수집하여 글을 쓴 것처럼 누가 자신도 글을 쓰는 것이 좋다고 여진 이유는 누가는 순서를 따라 글을 쓰려는 독특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2:3). 누가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연구하였기 때문이 사건의 순서에 따라 배열된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차례대로’ - 누가복음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갈릴리 (4:14ff) -> 사마리아 (9:51ff) -> 예루살렘 구속사적으로 약속과 성취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2:3의 ‘각하’(‘most excellent,’ kratiste)는 수신사 데오빌로에 관하여 어떠한 정보를 알려주는가? 각하의 칭호는 고위 관직을 뜻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데오빌로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각하의 호칭은 데오빌로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아마도 부유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데오빌로는 첫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대인 혹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데오빌로는 주전 3세기 정도부터 폭넓게 발견되는 이름인데, 이방인과 헬라인 모두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2:4에 비추어 볼 때, 데오빌로는 아마도 새로 개정한 사람 혹은 교리 교육 피교육자였을 것이다. 당시 그레코로만 관습에서 저자가 후원자를 언급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누가의 후원자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누가복음은 사적인 작품은 아니었을 것이다.

1:5-2:52은 세례 요한과 예수의 출생 이야기를 논한다. 두 사람은 모두 천사의 메시지가 있은 후 기적적으로 태어난다. 또 두 이야기에 모두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들어 있고 (1:46-52, 67-79; 2:29-32), 두 사람 모두 성령에 충만해 진다 (1:15, 35; 참조, 4:1). 두 사람의 성장 과정도 비슷하다 (1:80; 2:52). 하지만 3-4장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이며, 선지자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을 가져다 주는 메시야이다 (1:16-17, 31-33; 2:10-11, 26-32).

이 단락 (1:5-2:52)의 헬라어 문체는 셈어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헬라어로 보인다. 이 단락의 상당 부분은 셈어를 번역한 헬라어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유대적 성격이 짙은 주제들과 결합되어 잇어서 이 장을 읽을 때, 구약성경을 읽는 것 같은 분위기를 독자에게 주며, 이러한 문체를 통하여 누가는 예수가 구약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강조한다.

1:6의 “의인”은 무슨 뜻인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 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흠이 없이’ (1:6): 이것은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던 이유가 죄의 결과가 아님을 지적 하는 기능을 한다.

누가복음 서두에는 네 편의 찬송시들을 수록하고 있다. 엘리사벳의 찬가 (눅 1:42-45), 마리아의 찬가 (1:46-55), 사가랴의 찬가 (눅 1:68-79), 시므온의 찬가 (눅 2:29-32).

1:15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필로의 문헌에서 이삭이 선천적으로 훈련된 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묘사하는 부분이 나온다. 헬레니즘 유대교에서 누군가의 훌륭한 자질을 묘사할 때 “모태로부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이런 표현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후에 발전되고 성숙해져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선천적으로 그랬다고 묘사된다.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원래 훌륭한 전형적인 헬레니즘 유대적 위인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 구절은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이 활동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1:16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말라기 4:5에 예언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전에 등장할 선지자 엘리야임을 암시한다. 말라기 4:6은 그 선지자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 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 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아버지’는 그들의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 땅을 치시게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본문은 말라기 4:6의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보고 말라기 4:6을 세례 요한과 관련시킨다. 이것은 누가복음 1:17에서 말라기 4:6 이 직접 인용되기 때문에 더욱 분명해 진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보는 것은 구약 유대 문헌에서 흔한 것이다 (출 4:22; 렘 31:6 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특히 장자이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가족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1:17의 “주의 앞에 먼저와서”는 말라기 4:5(“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와 관련된다. 누가복음의 문맥상 세례요한 은 예수보다 앞서 보내어진 선지자이므로 누가복음 문맥에서 세례요한을 말라기 4:5과 연관시키면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된다. 즉 예수께서 오심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오심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고기독론).

32절 ‘그 조상 다윗,’: 다윗을 아버지 또는 조상으로 칭한 것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간주하는 표현이다. ‘다윗의 자손’은 당시의 메시아 칭호였다.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의 시편 17:21에서 최초로 메시아 칭호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그 조상 다윗’이란 표현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아들의 정체를 알려준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적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한편, 삼하 7:14과 같이 예수님의 다윗 계열의 왕이시라는 것을 함축할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1:33): 이 예언은 사무엘 하 7:12-16을 배경으로 한다.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여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자의 칭호로 적합했다.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삼하 7:12-16).

사무엘하 22:51와 시편 18:50에는 메시아, 왕, 다윗의 자손이 연관되어 등장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즉 메시아)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삼하 22:51).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시편 18:50).

1:35절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 칭호이다. 4 Ezra 7:28에 나오는 “나의 아들 메시아”라는 표현은 이러한 가능성을 암시한다. 4Q246 2:1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하며 은 다윗 , 4Q174 1:10-11의 가지(메시아)를 삼하 7:12-14의 아버지-아들 이미지와 동일시한다.

[And] YHWH [de]clares to you that “he will build you a house. I will raise up your seed after you and establish the throne of his kingdom [for ev]er. I will be a father to him and he will be a son to me”(4Q174 1:10-11a).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신 것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단순한 메시아로서 “아들”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즉 예수님은 단순한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과의 독특한 부자 관계에 있으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메시아 칭호를 통해 예수가 메시아임을 독자들에게 알려준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문맥은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를 단순한 메시아 칭호가 아니라 마리아가 잉태할 때 성령을 통해 잉태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간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 아들’ 메시아이다.

참고) 마 11: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1:46-55의 마리아 찬가에서 주목해야하는 두 가지 요점이 발견된다. 하나는 부자와 가난한 자. 권세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발생할 운명의 역전이라는 주제와 다른 하나는 재물 및 빈부의 주제로서 부자에 대한 적의와 가난한 자에 대한 호의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구절들은 부자들이 권세 있는 자와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한 범주에 묶여 소개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비의 수혜자들인 이스라엘의 겸손하고 주리는 자들과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52절의 구절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두 그룹의 운명의 역전을 단적으로 묘사한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인하여 기존의 일상적 삶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됨을 뜻하는 것이다. 이 주제는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1:46-57은 시 35:9, 삼하 1:11, 합 3:18 그리고 1:48은 창 29:32; 30:13; 시 31:8을 반영하는 듯하다. 역전의 주제가 다시 나타나는 것은 평지 설교 (눅 6:20-26)이다. 여덟개 복이 등장하는 마태복음의 팔복과는 달리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에 대한 네 개의 복과 그에 상응하여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 받는 자에 대한 네개의 화가 등장한다. 이것은 매우 전형적인 역적의 주제이다. 그리고 역전의 주제가 잘 묘사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눅 16:-19-31)이다. 지상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채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마침내 굶어죽은 거지 나사로가 그 다음 장면에서는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반면에 지상에서는 온갖 사치와 부귀를 누리던 부자가 다음 세상에서는 음부와 무서운 고통에 시달리게 된 이 비유야 말로 운명의 역전의 전형적인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눅 13:30과 14:11을 보라). 마리아 찬가의 주리는 자와 부자 (1:53)을 영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마리아가 말하는 가난은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오직 영적인 의미만을 지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바와 같이, 누가복음은 분명히 사회적인 관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난의 개념은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 찬가는 향후 누가복음에서 중요하게 전개될 두 주제, 즉 역전의 주제와 빈부의 주제에 대한 서론적 의미를 지니며 전체 내용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에 등장하는 네 개의 찬송시는 공통적으로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메시야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메시야 시대의 도래 및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본 마리아 찬가는 메시아 시대의 특징을 빈부의 역전과 관련시킨다.

아울러 마리아 찬가는 두번째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을 담고 있다. 1:48절 여종의 비천함은 사 40:2의 그녀의 비참한 상태”를 연상시킨다. 그러므로 비천함보다는 비참함이 더 좋은 번역일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일종의 이스라엘로서 포로기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연상시킨다. 1:51에서 그의 팔로 라는 것은 행 13:17에서 하나님께서 높이 든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한다. 하나님의 팔은 출애굽과 관련되어 쓰인 언어이다. 신명기 26:8에서 출애굽과 관련하여 쓰였다. 마리아는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한 사건을 새출애굽 사건으로 그려내고 있다.

1:51에서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는 민수기 10:35(“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를 연상시킨다. 이스 라엘은 불순종하여 열방 가운데 흩어짐을 당했다 (느헤미야 1:8). 이제 구원의 시대가 도래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흩으시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비천한 자 는 절에 ” - ‘ ’ 54 명시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54절은 명시적으로 이 찬가가 이스라엘의 찬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마리아는 일종의 이스라엘의 대표이다. 곧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 상태이며, 이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것이 제2출애굽이며, 특히 포로되어 있는 것은 영적인 포로 상태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조건을 포함함을 보여준다.

사가랴의 예언 1:67에서 다시 사가랴는 이스라엘을 언급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본 누가복음 서두에서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이것은 또한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곧 예수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 왕이시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1:68절 ‘돌보사’: 7:16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두고 한 표현에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출애굽기 4:31에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관계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돌보셨다).” 다시 제2출애굽의 개념으로 구원의 개념을 설명한다.

1: 69절 ‘구원의 뿔’은 문맥상 이스라엘을 구원할 존재로서 의 세례자 요한을 가리킨다. 이 표현은 삼하 22:3에도 등장한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한다. 시편 18:3 (70인역은 17:3, 개역은 18:2)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뿔”로 묘사된다. 누가복음에서 사가랴는 하나님에게 사용된 ‘구원의 뿔’이란 표현을 세례자 요한에게 적하고 있다. 곧 요한은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분이시다.

1:71절의 원수는 로마를 지칭할 것이다. 사가랴의 예언은 압제가운데 존재하던 이스라엘의 관점이사가랴의 예언에 스며들어 있는 듯하다.

1:76절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 - 사가랴는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로 이해한다. 즉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지만, 구약의 예언자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여겨진다.

1:76: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사야 40:3을 보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자 요한은 누가복음 문맥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므로 예수님의 길은 곧 하나님의 길과 동일시된다. (고기독론)

1:77절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할 사역은 죄 서를 통하여 구원의 지식을 하나님의 백성 에게 주는 것이다.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망했으므로 레위기 죄가 용서되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레위기 26:40-42).

1:80 ‘빈 들에’ - 세례자 요한은 왜 광야에서 살았을까 이것은 아마도 그의 사명이 이사야 40:3과 관련하여 이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사야에 의하면 여호와의 길은 광야(40:3) 에서 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광야로 나아가야했다. 광야는 출애굽이 일어난 장소이므로 새출애굽도 광야를 배경으로 발생하리라고 기대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사 40장에서 말하는 두 번째 출애굽에 비추어서 이해했을 것이다. 이제 구원의 여명이 시작되었다. 이제 구원자 메시아왕께서 오실 차례이다.

1:8: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복음서의 유일한 언급이다. 곧 예수님은 할례자 곧 유대인이셨다는 말이다. 이런 언급이 왜 필요한가?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더군다나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을 예수님께서 치루셨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언급이 왜 필요한가? 이방인이 독자였다면 이런 언급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고 성전에서 장자를 위한 속전을 바쳤다.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하여 성전으로 마친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라. 제자들은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누가복음은 성전이 중요했다. 왜냐면 성전은 유대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다. 그리고 성전은 세상의 중심이다. 누가복음은 이 유대적 세계관을 무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눅 24:47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성전과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에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다르면 이제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행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라). 그러면 어떤 시대인가? 교회의 시대가 온 것이다. 거대한 성전에서 제사하는 시대는 종결되었고,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하는 초대 교회의 작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현대에 건물 중심으로 교회를 정의 내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예전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했지만, 선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건물 중심, 대형화되는 이 시대 (건축 기독교)는 시대 착오적인 것이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11절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퀴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 주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을 가리킨다: 1:25, 28, 58; 2:15; 20:42. 특히 1:32,68에서는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그런데, 퀴리오스는 7:13; 10:1, 41; 11:39; 12:42a; 13:15; 17:6; 18:6; 22:61; 24: 에서 예수님을 가리킨다. 6:5; 12:37, 42b, 43, 45, 46; 14:23; 16:3, 8; 20:13, 15에서는 일반 용어로 쓰였다. 19:31, 34에서 퀴리오스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퀴리오스라는 부르는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부르는데 사용된 이름 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부르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이다. 2:11에서는 예수님을 단지 메시아로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퀴리오스라 소개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이상의 신적 존재이므로 ‘메시아’라는 소개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기독론)

2:23절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 둘은 레위기 12:8에 의하면 어린양을 번제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결제 제물이다. 이것은 마리아 가정이 가난했음을 암시한다.

2:25절 : 개역은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번역함. 1장에 이어 율법을 잘 지킴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킨 이들에게 인증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핟. 곧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되고 심지어 예언된 분이시다.

1:34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것의 의미는 35절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35절은 마음속의 악한 생각이 드러나서 부끄 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뜻인 듯하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나” 이것은 아마도 예수께서 고난 당할 때 마리아가 겪을 고통을 예언하는 듯하다.

1:38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며,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야임을 보여준다.

1:46절 ‘선생들 중에서’ - 율법교사들 한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을 가리킨다. 2:46은 예수께서 율법교사들의 초점을 받으며 그들에게 둘려싸여 그들과 토론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46절은 예수께서 듣고 질문하셨다고 하지만, 47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고 하므로 이것은 일방적인 질문이 아니라 토론 상황임을 알 수 있다.